

2021 우주설 파이널 5주차  
실전모의고사 활용방법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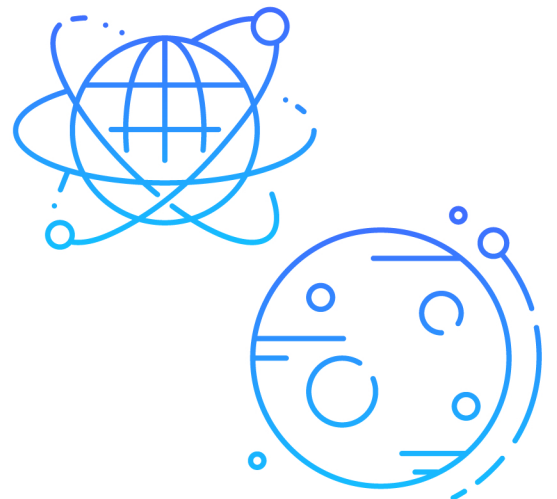


(Watch your thought, or they become words, Watch your words, for they become actions,  
Watch your actions, for they become habits, Watch your habits, for they become character,  
Watch your character, for it becomes your destiny  
What we think, we become.)

- Margaret Thatcher, The Iron lady

# 우주설

2021 수능대비  
수학  
워크북



## 1. 서론

마무리 학습을 위한 조언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곤 합니다. 학습량은 누적되어 가지만 우리는 왜 불안해질까요?  
이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점점 발견되기 때문.
2. 이렇게 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
3.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것을 공략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최악의 방법 중 하나**는 개념서 및 개념강의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개념서 및 개념강의를 정독해 100이라는 내용을 학습한다고 해도 알고 있는 9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던 10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생이 그것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능수학 이라는 과목 특성상 개념 및 내용을 안다고 무조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잘 모르고 있던 내용 중에서도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은 수학 개념 및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파생된 수학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개념 및 내용은 수학 문제를 공부할 때의 학습속련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념에서 파생된 수학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수학은 시험장에서 해당 문제를 공부하고 있으면 잘 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항에 대한 공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학문제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기출분석, N제, 알고리즘 체화 등은 지금 시기에 다룰 내용도 아니고 어차피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이미 되어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기본 기출 분석을 통해 8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점점 발견되기 때문.
2. 이렇게 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
3.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

우리가 불안해 지는 이유 3가지를 한 번에 극복하며 마무리 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실전모의고사를 통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 100분의 시간투자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 자신이 아는 것은 복습하고, 모르는 것은 찾아낼 기회이며 자신의 약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모를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실모를 풀지와 어떤 순서대로 풀지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2025 수능 대비 5주 차

## 04 수학 가형의 출제 방향, 출제 범위와 문항 수,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 수학 가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 수학 가형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과목은 '수학 I',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각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제 범위 이외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학', '수학 II'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출제됩니다.
- 수학 가형의 출제 문항 수는 '수학 I' 10문항, '미적분' 10문항, '확률과 통계' 10문항으로 전체 출제 문항 수는 30문항입니다. 다만,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는 수학 가형의 전체 내용과 수준에 따라 2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소요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점, 3점, 4점으로 차등 배점합니다.
- 문항 유형별 출제 비율은 5지선다형 70%(21문항), 단답형 30%(9문항)이며 단답형은 정답이 3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출제됩니다.

위 사진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수능 관련 QnA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출제 문항 수의 비율은 1:1:1로 하되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올해 실시된 평가원 모의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 6월 모의평가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14 15 18 21 26 등 12문항 출제	17 19 27 29 등 8문항 출제	16 20 28 30 등 10문항 출제
39점 배점	28점 배점	33점 배점

2021 9월 모의평가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16 21 27 등 9문항 출제	14 17 19 26 29 등 9문항 출제	15 18 20 28 30 등 12문항 출제
29점 배점	31점 배점	40점 배점

## 2.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 및 준비

- 6 / 9월 모의고사 공통된 출제형식 및 분석

6월 모의평가는 출제범위로 인해 상당히 치우쳐 있지만, 6월, 9월을 함께 살펴보면 평가원은 올해 수험생의 수학적취득도를 전 범위, 전 교과에 걸쳐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 원칙에 따라 한 교과당 최대 12문항까지 출제가 가능한데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12문항을 출제하였고 (의도보다는 출제범위에 의한 타의로 보임)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적분을 12문항 출제하여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미적분에 대한 성취도를 조사하였습니다.

2번의 시험에 출제된 4점 문항의 수는 26개인데, 교과목당 문항수가 8 : 9 : 9로 정말 균형 있게 잘 출제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시험출제에서 교과목 간 균형에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7+3 구조의 수학 시험지에서는 교과목당 4점 문항의 수라던지 교과목 간 균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27문제는 다 같이 맞추는 거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킬러 3문항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비 킬러 기조로 골고루 문제가 까다롭고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내려가 틀리는 문항에 규칙성이 없는 시험에서는 이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비킬러 시험지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형식의 제한이 생깁니다. 즉 규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 확통, 미적의 출제 문항 수는 9 : 9 : 12를 예상합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공통된 출제형식을 나열해보겠습니다. (4점 문항만 분석합니다.)

- (1). 21, 29, 30에 수학, 확통, 미적을 각각 1문항씩 배치한 균형.
- (2). 26, 27, 28에 수학, 확통, 미적을 각각 1문항씩 배치한 균형. 특히 삼도극은 28번에 고정되어 있는데, 9월 모의평가 28번에 삼도극이 출제된 것은 2015년 이후 5년만입니다. 이는 수학 B형 시절.
- (3). 17, 19번에 확률 문항 고정
- (4). 20번 미적분 문항 고정 (21번 킬러가 수학으로 바뀐 영향으로 보임)
- (5). 18번에  $\gamma$ -노 고정
- (6). 15~16번에 수학 빈칸, 미적 1개씩

이처럼 어느 정도의 틀을 정해놓고 균형있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실전모의고사도 이러한 틀이 유사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편집한 것이 아닌 9월 모의평가 이후 올해의 경향 및 시험지형식을 분석해서 나온 최신본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월에 출시되는 모의평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이 반영된 모의고사가 무엇이나?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10월에 출간되는 것을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풀커리를 탄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의 모의고사를 푸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분량은 27회입니다. 참고로 수능완성 뒤에 있는 실전 모의평가는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우선 24~30회 분량의 실전모의고사를 선정합니다. 나중에 쌓여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더 순차적으로 풀기 쉽게 정리합니다.

[예시]

킬링캠프 시즌2 (6회)

기대모의고사 vol.3 (3회)

이해원 모의고사 시즌3 (3회)

이해원 모의고사 파이널 (2회)

새로운 모의고사 (3회)

설바이벌 (10회)

84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오답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84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합니다. 제대로 된 실모 학습을 한다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응시를 하셔야 하는데, 시험 응시 자체의 중요성이 10이라고 한다면 오답 및 피드백의 중요성은 9입니다.

그렇다면 오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 3. 오답의 관점

- 해당 문제에 대한 오답

오답을 하기 전 자신이 알아 볼 수 있는 용어로 출제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크게, 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상세하게 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복순열도 본인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1. 함수/부분집합의 개수 2. 중복순열 (나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코드	수학	코드	확률과 통계
1	제공근	15	중복순열 나열
2	지수와 로그의 연산	16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3	지수 로그 그래프에서 방정식을 작성	17	중복조합
4	지수 로그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비교	18	함수/부분집합의 개수 유형
5	지수 로그 방정식/부등식 치환유형	19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확률
6	삼각함수의 동경과 일반 해	20	사건의 독립, 종속, 배반
7	삼각방정식/부등식	21	확률의 연산 및 조건부 확률
8	삼각함수의 그래프 (주기성과 대칭성)	22	이산확률변수와 $\sum$
9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23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해석
10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24	이항분포의 확률질량함수 해석
11	나열하여 풀이하는 수열 (소거 및 $\sum$ 활용 포함)	25	정규분포 개념서술형태
12	$S_n - S_{n-1}$ 유형	26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함숫값 비교
13	수열 빈칸 (도형 및 그래프로 정의된 수열 포함)	27	표본평균
14	수학적 귀납법	28	신뢰구간

코드	미적분	코드	미적분
29	수열의 극한 (수렴조건 포함)	41	실근의 개수
30	무한 급수 (수렴조건 포함)	42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추론
31	무한등비급수 도형	43	속도 가속도
32	여러 가지 미분법 (양변에 ln 씌운 뒤 미분포함)	44	초월함수의 적분
33	무리수 $e$ 의 정의	45	일반함수의 적분 (피적분 함수를 모르는 적분활용)
34	삼각함수 덧셈정리	46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부정적분
35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활용	47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리고 관찰하는 유형
36	역함수의 미분법	48	정적분 값을 $k$ 로 치환하는 유형
37	극값, 변곡점 판정	49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극한
38	접선의 방정식	50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39	미분 활용: 최댓값, 최솟값	51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부피
40	미분 활용: 부등식에 활용	52	점이 움직이는 거리, 곡선의 길이

이렇게 유형별로 코드를 정해두면, 자신이 약한 부분도 파악하기 쉽고 오답효율도 올라갑니다. 물론 실모를 풀어감에 따라 추가되는 유형은 코드 53, 54로 업데이트 해나가면 됩니다.

매번 똑같은 것을 틀린다는 훈수를 듣는 것 보다는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스스로 매번 같은 코드를 적으며 직접 확인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9월까지의 학습이 적(수능)을 알아가는 공부였다면, 10월부터는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오답의 중요성 그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틀렸던 것을 또 틀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답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 아래의 문항을 틀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4번을 선택해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코드 170이네요)

### 설바이별 1회

3. 5개의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2점]

- ① 19      ② 21      ③ 23      ④ 25      ⑤ 27

틀린 학생들의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를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케이스 분류해야겠다.

- i) 4를 3번사용: 1가지 (4, 4, 4 추출)
- ii) 4를 2번사용: 4가지 (4, 4 0 추출. 0에 1, 2, 3, 5가 들어갈 수 있음)
- iii) 4를 1번사용: 4<sup>2</sup>가지 (4, 0, △ 추출, 0, △에 1, 2, 3, 5가 들어갈 수 있음)
- iv) 4를 0번사용: 4가지 (2, 2, 0 추출. 0에 1, 2, 3, 5가 들어갈 수 있음)

$$1 + 4 + 16 + 4 = 25$$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오답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를 1번 추출할 때, 0, △에 1, 2, 3, 5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나열 (4<sup>2</sup>) 이 아닌  ${}_4H_2 = 10$ 이 맞다“

라고 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또 틀립니다. 오답은 해당 문제가 아닌 해당 유형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오답노트 예시]

“4를 1번 추출할 때, 0, △에 1, 2, 3, 5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나열 ( $4^2$ ) 이 아닌  ${}_4H_2 = 10$ 이 맞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봅시다.

오답관점1: 발문관점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를 크게 2종류로 구분이 된다. 나열과 추출 (순열과 조합)이다.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나열. 순서가 정해진 것이 추출인데 발문에서는 ‘택할 때,’ 라는 말로 추출을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문제 호흡이 길어짐에 따라 이를 혼동하였다.

설바이별 1회

3. 5개의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2점]

순서를 고려하지 X

① 19      ② 21      ③ 23      ④ 25      ⑤ 27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발문에서 제시한 순열, 조합에 관한 단서를 동그라미를 쳐서 체크하고 발문을 다 읽고 풀이를 시작하기 전, 발문과 선지 사이에 순서를 고려 O, 순서를 고려하지 X를 적고 시작하기로 하였다. 발문과 선지 사이에 적는 이유는, 문제를 다 읽고 풀이를 시작할 때, 체크하고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답을 체크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

오답관점2: 풀이관점

케이스 분류가 쓸데없이 길어져 실수가 나온 것이다.

i) 4를 3번사용, ii) 4를 2번사용, iii) 4를 1번사용, iv) 4를 0번사용으로 분류할 필요 없이, i) 4를 적어도 1번사용, ii) 4를 적어도 0번사용, 2를 적어도 2번사용으로 분류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출에서 공부한 ‘적어도’ 유형 풀이를 사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 i) 4를 적어도 1번사용
  - (1) 전체 ( ${}_5H_3$ )에서 4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 ( ${}_4H_3$ )를 빼면  $35 - 20 = 15$
  - (2) 4를 하나 뺀고 시작하면, 2개의 수만 더 추출하면 되므로  ${}_5H_2 = 15$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추출이므로 가능)
- ii) 4를 적어도 0번사용, 2를 적어도 2번사용
  - 2를 2번 뺀고 시작하면, 1, 2, 3, 5 중 1개의 수만 더 추출하면 되므로  ${}_4H_1 = 4$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추출이므로 가능)

이렇게 철저한 오답이 되었다면, 직후에 비슷한 문제를 더 찾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만났을 때, 실수 없이 정답을 이끌어 내 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점수를 올려나가면 됩니다.

### 설바이벌 2회

24. 5개의 자연수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네 수들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점]

당연히 위 문항을 이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발문관점 오답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이를 시작할 것이고, 풀이관점 오답에 의해 풀이를 쉽게 작성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설바이벌 2회

24. 5개의 자연수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네 수들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점] 순서를 고려하지 X

그런데도 만에 하나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산을 위한 장치를 시험 전에 고안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6의 배수가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해보면,  ${}_5H_4 = 70$ 이므로 정답은 7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읽고 풀이를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이 메모할 수 있다.

### 설바이벌 2회

24. 5개의 자연수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네 수들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점] 순서를 고려하지 X, 답은 70↓

시간만 날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고 풀이를 시작하므로 풀이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태도를 교정하여 단축될 수 있습니다.

### 3. 오답의 관점

- 해당 시험에 대한 오답

정답을 맞힌 문제라고 해서 오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췄지만 시간을 많이 사용한 문제는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오답을 2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문장 형태로 피드백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왜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지 못하였는가?
2. 왜 이 문제를 바로 넘어가지 않고 잡고 있었는가?

[오답예시]

#### 설바이별 3회

16. 실수  $a, b$ 에 대하여 함수  $f(x), g(x)$ 가 다음과 같다.

$$f(x) = 2\cos^2 x + |\cos x| + a, \quad g(x) = \cos bx \quad (\text{단, } ab < 0)$$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부등식

$$f(x)g(x) \geq 0$$

이 성립할 때,  $a+b$ 의 값은? [4점]

- ①  $-2 - \frac{\sqrt{2}}{2}$       ②  $-1 - \frac{\sqrt{2}}{2}$       ③  $-\sqrt{2}$   
 ④  $1 - \frac{\sqrt{2}}{2}$       ⑤  $\sqrt{2} - 1$

1. 왜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지 못하였는가?

- 실수 전체에서  $f(x)g(x) \geq 0$ 이기 위해서는?  $\Rightarrow f(x)$ 의 부호가 변할 때,  $g(x)$ 의 부호도 같이 변해야한다. (이 해석을 빠르게 하지 못함)
- + 출제의도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수학 (삼각함수) 미적분 (부등식에 활용) 중 어디서 출제된 문항인가?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출제 의도는 삼각함수의 주기성,  $f(x), g(x)$ 는 주기성을 갖는 함수이다.  $f(x)g(x) \geq 0$ 이기 위해서는  $g(x)$ 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두 함수의 주기가 같아야 함을 알 수 있다.

2. 왜 이 문제를 바로 넘어가지 않고 잡고 있었는가?

- 16번부터 못 풀면 나중에 압박을 느낄까봐. 그런데 오히려 잡고 있는 게 더 압박을 느낀다. 시험이 끝나고 보니, 나 말고도 16번이 막혔던 사람은 수 없이 많았다. 명심하자. 내몰다몰 (내가 모르면 다 모른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해당 시험에 대한 오답입니다. 평소 실력과 시험점수는 무조건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100분의 시간과 멘탈을 관리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 “시험은 말이지... 기세야 기세!” 영화 <기생충>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특히나 비킬러 위주의 시험이 되고 이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점점 흐름을 타며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해야 하는 시험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매달려 70%도 발휘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학 (가)형은 그날 운, 컨디션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운, 컨디션까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제발’이라고 생각만 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시험관리 능력을 상승시키고, 본인이 어떻게 시험을 응시할 때 본인의 컨디션이 최상이 되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최상의 루틴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과학에서 배우는 ‘변인’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시험 루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과분들 죄송) 물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시간은 반드시 재셔야 하고, OMR에 마킹까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시]

기준	(1)	(2)
예열	예열문항을 풀고 시험을 보는 게 좋다	예열문항이 없는 게 좋다
순서	평범하게 차례대로 푸는 게 좋다.	객/주관식 상관없이 3점부터 다 푼다,
검토	확통 문제만 한번 씩 다시 푼다.	26번~28번만 한번 씩 다시 푼다.
마킹	마킹을 하는 시점을 정해두지 않는다.	집중력이 깨졌다 싶을 때, 마킹하며 다시 멘탈을 잡는다.
패싱	30초 동안 진행이 안 되면 넘어 간다.	1분 동안 진행이 안 되면 넘어간다.

위는 당장 생각나는 변인을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실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점수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하듯 반복하여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완성합니다.

## 4.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법

- 오답 노트로 복습하는 방법

앞에서 말한 기준으로 오답을 한다면? 한 시험지당 5문제를 오답한다 하였을 때, 30회면 150문제이고 이건 오답노트가 아니라 그냥 오답 N제 아닌가요? 그렇기에 오답노트는 기본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보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150문제를 어느 세월에? 마무리를 하는 취지를 살리면 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틀린다. 나는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해당 문제가 기록된 페이지를 찢어내시면 됩니다. 반복하며 오답 N제를 점점 얇게 만들고, 시험장에 갈 때 5장 이내로 줄어든 오답 N제를 들고 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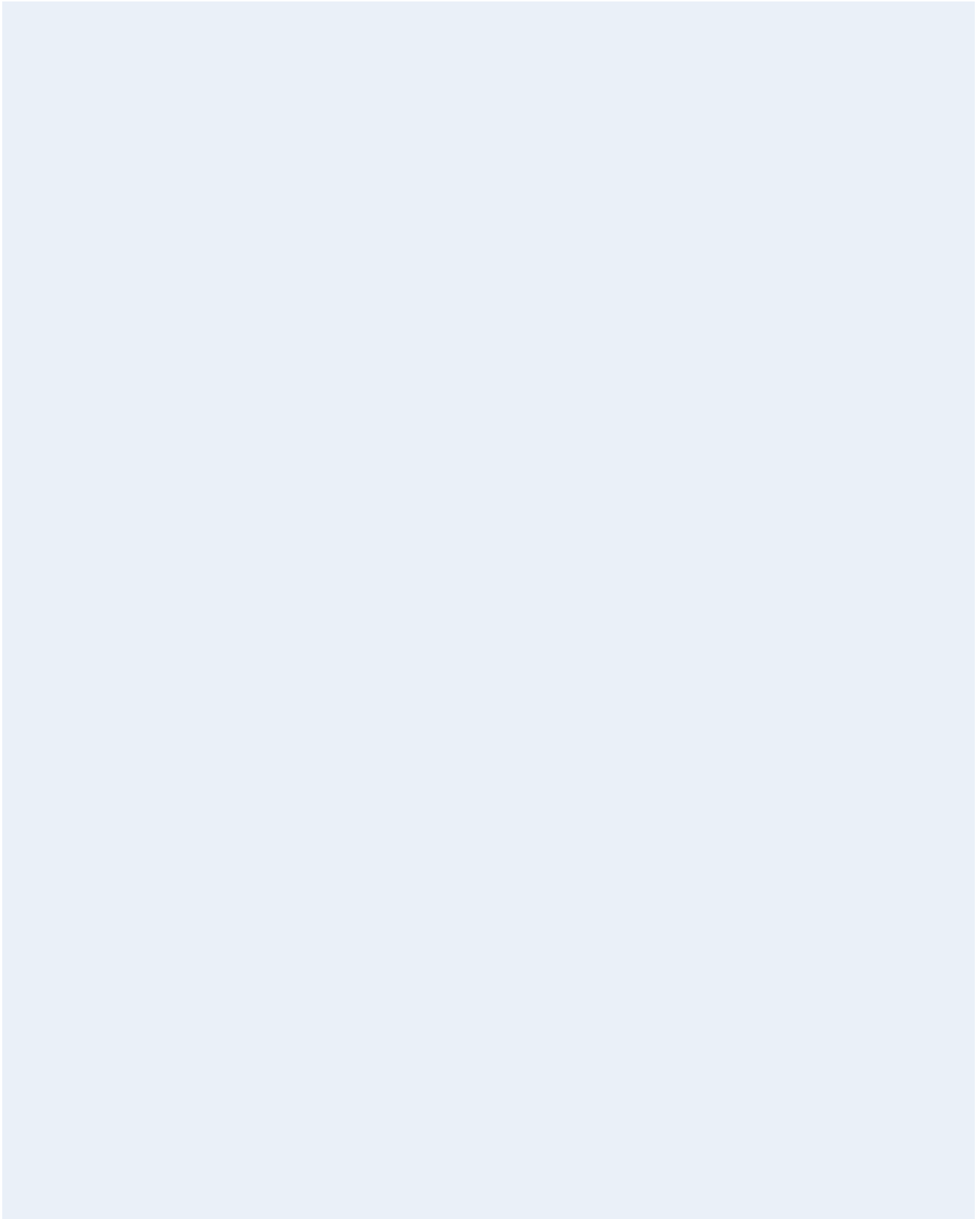
또한 오답노트는 깊게 한 번 보기보단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갤러리에 모아두는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받아 적는다고 입력되는 건 텍스트지 내용이 아니니까. 테블릿과 Good Note를 이용하여 오답하는 것 도 매우 좋겠네요. 딱지만 안 한다면 시간대비 최대 효율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답노트 꼼꼼하게 하면 시간대비 점수 및 실력이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수험생활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전력으로 지지합니다.

## MEMO(메모)



# 우주설 수학

Naver ID, 우주설 (포만한)

ORBI ID, 우주설 (오르비)